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1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2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3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싸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4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1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께 때 함께 하소서
- 2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 3 세상의 영광 나 안보여도 언제나 주님의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 4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 담당

9/1(화)	9/2(수)	9/3(목)	9/4(금)	9/5(토)	9/7(월)
이태호 안수집사	정호성2 안수집사	김영민3 재적안수집사	강성균 안수집사	전부열 안수집사	이승균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 롬12:11)

2026년 9월 5일(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11장 다 같 이
기 도 전부열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사무엘하 6장 1~8절 인 도 자
찬 양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새벽찬양대
설 교 『 좋은 열심도 말씀을 떠나면 』 최유진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8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1~8>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고 성경 구절

민수기 7:9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출애굽기 25:14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하며

민수기 4:15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9월 5일(토)

하나님, 오늘도 내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뜻이라 여기며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고 편리한 길보다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길이 되게 하시며, 은혜에 붙들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사람의 열심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과보다 순종을, 속도보다 말씀을, 주장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139년 동안 새문안교회를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다시 복음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잘못된 열심을 비추어 다시 십자가와 말씀 앞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화려한 새 수레를 자랑하기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어깨를 내어 드리게 하시고, 성공과 크기를 좇기보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넘어 공의와 긍휼이 흐르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복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폭력의 손은 멈추게 하시며 상처 입은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소망을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좋은 열심도 말씀을 떠나면 길을 잃지만, 은혜에 붙들린 열심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옴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026년 새문안교회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및 선교 일정 >

부서		날짜
국내선교	청년2부 부여지역	10월 중